

담양군,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력 높인다

금융·임대료·판로·공공요금까지...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경관 개선·공동 마케팅·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담양군이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담양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지원책으로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지역 경제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등 1석 2조 효과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2곳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담양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차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연 3%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약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월 2만 원을 적립해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보증과 더불어 교육, 컨설팅, 금융교육 등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20개 업체 181억원, 올해 326개 업체에 91억원의 용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마케팅·홍보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착한 수수료 정책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해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음식점 소상공인 350개소에 30만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지급해 고정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과 야간경관 전기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도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10개소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으며, 중앙로·메타프 로망스·담양시장 등 주요 상권의 점등 전기료와 타 이머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앙로 일대가 담양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경관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기존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단기적인 경영 안정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최근 담양읍 다미길 일대에서 열린 쓰담쓰담 야시장에 30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담양 쓰담쓰담 야시장 전경. <담양군 제공>

장성군 경청하는 군정... '이장 간담회' 117개 안전 접수

접수 안전 소관부서 실행 여부 검토

장성군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 등 경청하는 군정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7월 실시한 '읍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총 117건의 제안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성읍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제안을 기록했고, 황룡·남·동화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교통에너지과 제안이 집중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이 주를 이뤘다.

장성읍에선 노후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과 읍사가지 주차공간 확보, 자연재난 대비책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펼쳤다.

진원면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과 이장 인원 확대를 요청했다.

남면에서는 분향리 유희부지 도시숲 조성과 문화센터 공터 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지 노력 등을 건의했다.

동화면은 옛 동화농협 부지 활용 방안, 면소재지 간판 정비, 폭우 대비 용·배수로 확장, 농공단지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삼서면은 서부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군 차원의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삼계면에서는 사창초교 앞 도로·인도 정비, 주



김한중(맨 왼쪽) 장성군수가 '이장과의 소통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성군 제공>

산리 택지 내 공용주차장 추가 조성, 상무목욕탕 운영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룡면은 황룡강·단강천 문화공간 조성, 황룡우시장 이전 및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서삼면은 축령산 추암지구 관광시설 확충,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 등을 요청했다.

북일면에선 행정복지센터 내부 공사, 마을 내 빈집 활용 방안 등을 건의했다.

북이면은 백양사역 공용주차장 조성, 북부권 만원주택 건립 등을 제안했다.

북하면에서는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

로 탈바꿈시키는 '장성 원더랜드' 조성, 백양사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케이(K)-사찰음식 명소화' 사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은 접수된 안전건들을 소관부서에 전달해 검토하고, 결과가 도출되면 읍면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정과 민생 전반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가까이 들을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에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집중호우 이후 벼 병해충 방제 당부

출수기 맞물려 도열병 등 확산 우려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과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7월과 8월 잇따른 집중호우로 많은 벼 재배지가 침수됐으며, 이후 지속한 강우로 벼 출수기와 맞물려 멸구류(흰등멸구),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확산 우려가 크다.

특히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세대 증식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예년보다 방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주요 지점에서 벼

멸구를 포함한 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급속 확산 우려가 있는 멸구류와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주의보를 발령하며 농업인에게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벼 재배지 6875ha를 대상으로 2개 사업에 5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나서고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와 지속적인 강우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업인과 방제단의 철저한 사전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신노년 일자리 지난해보다 20명 늘어 170여명 일자리 제공

나주시가 지난해 신노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성공 추진을 통해 올해 국비 예산 추가 확보로 노인 일자리를 늘려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사업 협약을 통해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2억90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안전·복지·의료서비스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공공분야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기관에 국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공원녹지와,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3개 부서가 참여해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170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올해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4025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어르신들이 급식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영농폐기물 배출·분리 지원, 시니어 홍보사업단, 문화재 시설 봉사, 버스 승강장 청소 지원, 우리마을 자원순환봉사 사업에 참여해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열린 특별 체험프로그램 '바다거북 바로 알기'에서 유·초등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바다거북 바로 알기' 체험 프로그램

유·초등학생 5명 참여

화순군은 지난 9일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유·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특별 체험프로그램 '바다거북 바로 알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다거북 생태 교육과 제작 체험을 연계해 참여자의 환경 인식과 학습 흥미를 높이고, 문화관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문화관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한 사전 접수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됐으며, 문화관 책임자 오승규 학예사가 교육과 체험을 직접 진행했다.

1층 영상실에서는 영상과 PPT를 활용해 바다거북의 생김새와 성장 과정, 서식 환경, 주요 종의 특징, 해양 생태계 내 역할, 그리고 해양 쓰레기와 기후변화 등 인간 활동이 미치는 위협 요인을 설명

했다. 이어 2층 세미나실로 이동해 골격염색표본 키링 제작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어류 표본을 선택해 투명 병에 담고, 식물성 글리세린을 주입한 뒤 병마개와 키링 고리를 결합하며 완성품을 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상 기반 이론 교육과 실습 체험을 결합한 교육 방식을 구현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각자 완성한 키링을 기념품으로 소장토록 해 교육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진행한 오승규 학예사는 "바다거북 생태 교육과 제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문화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광복 80주년 기념 장흥서 태극기 나눔 행사

군민·시장 상인 등에 100개 전달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중부연합지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흥 장남인 지난 12일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서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광복회 회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장흥군민과 시장 상인, 방문객들에게 태극기 100개를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만세삼창

이 울려 퍼지며, 광복의 감격과 애국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양동철 광복회 중부연합지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선열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주민 모두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 애국심을 실천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광복회와 봉사자들의 뜻깊은 활동에 감사드리며, 태극기와 함께하는 일상이야말로 보훈의 첫걸음"이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인천공항 직행 우등버스 신설

상·하행선 하루 1회씩 운행

강진~인천국제공항 직행 우등버스가 14일부터 운행된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노선은 강진군을 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목적지로 하루 1회 상행과 하행 운행이 이뤄진다.

상행 노선은 강진에서 오전 0시 30분 출발해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오전 5시, 제2터미널에 5시 25분에 도착한다.

하행 노선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오전 8시 15분 출발해 제1터미널을 경유한 뒤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강진에 오후 1시 15분에 도착한다. 총 운행 거리는 약 409km로, 28석 규모의 우등버스를 투입해 장시간 이동의 피로도를 낮추고 더 쾌적한 환경

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간 요금은 5만6700원, 야간 요금은 6만8000원이다. 예매의 경우 현장 발권 및 모바일(티머니 go, 고속버스모바일) 예매도 가능하며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대표소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이번 노선 신설은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지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민들에게는 시간 절약과 이동 편의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인천공항 직행 버스 신설은 군민들의 장거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광역 교통 인프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